

김준의 깃살이



작은 섬 가는 길

지난 주말에 찾아가 섬은 아주 작은 섬이었다. 거기에는 다섯 가구가 살고 있었다. 그곳을 들어가려고 그동안 몇 차례 시도했으나 여객선이 없었다. 이리 저리 수소문을 하다 겨우 마을어장과 연락이 닿았다. 만나기로 약속한 선창으로 이장이 배를 끌고 왔다.

비록 작은 섬이지만 한 배 조기를 잡아 일본 상인들에게 넘길 만큼 고기잡이가 활발했던 곳이다. 지금은 낚장망으로 멸치를 잡아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배를 정박한 이장은 “우리가 떠나면 무인도가 될 것이요, 주변에 그런 섬 세 부둣가라.”라며 꾸민 말을 던졌다.

선창 곳곳은 지난 여름 불라벤과 산바 등 태풍으로 무너진 생채기가 그대로 있었다. 이대로 내년 태풍까지 맞아야 할 것 같다는 이장의 자조적인 목소리가 결코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 또한 알고 있다. 뒤편 지 물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큰 섬, 작은 섬이 소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작은 섬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객선도 다니지 않는 작은 섬에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는 체념이 더 강하다. 그 체념 끝에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라는 표정이 들어 있었다.

한 달 전에 겪은 일이다. 작은 섬으로 가기 위해 땅 끝 갈두선착장에 도착해 표를 달라고 했다. 표를 파는 사람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선장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배가 못간다고 대답했다. 어처구니없었다. 오전에 통화할 때 출발시간까지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항변했다. “우리는 표만 팔고 운항 여부는 선장이 안다”며 선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그냥 돌아갈까 생각하다 해남까지 달려온 것이 억울했다. 또 언제 갈 수 있는지 확인도 하고 싶었다. 선착장에 정박하고 있는 배에 올라 선장실 문을 두들겼다. 선장은 주민들이 가두리양식장을 만들면서 항로를 막아 운항이 어렵다고 한다. 더 껌짜 놀란 건 지난해 중반부터 배가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 이장에게도 전화를 했다. 선장에게 부탁하면 배를 대준다면, “다른 큰 배도 왔어라. 기회만 생기면 안 올라고 핑계만 댈게”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렇다고 내가 바다로 가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답답했지만 발길을 돌렸다.

다만 평소에도 선장에게 부탁을 해야 작은 섬에 내려 준다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또 선장 말대로라면 배가 운항을 하지

않는 것이 오래된 일인데 배 시간을 알려준 매표소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었다. 작은 섬에 들어가기 위해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배 시간까지 알려줬던 것이다. 그때 배편이 없다고 했으면 땅 끝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물에서는 자가용을 가지고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사람 사는 곳에 도로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 버스 노선이 없으면 택시를 부르면 된다. 섬에는 항로가 있다. 배가 다니는 뱃길이다. 수송 주체에 따라 여객항로와 화물항로로 나뉜다. 그리고 여객항로는 일반항로와 명령항로가 있다. 내가 가려고 한 곳은 일반항로다.

명령항로는 정치상 또는 경제상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신에 경영을 명령하는 항로다. 일반항로도 기상이변 등 사정에 의해 항만청에서 결항을 명령하지 않는 한 운항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선장이 부서졌다. 물이 많이 빠져 수위가 낮다. 장애물이 있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운항이 중단되었거나 가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다. 완도의 낙도를 가려면 기름을 얼마나 때야 하는지라는 말이 말문이 막혔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1967년 해운진흥법에 근거를 마련해 낙도보조항로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명령항로라는 제도다.

일본의 어느 섬 지역은 ‘기선도 도로다’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 섬을 찾는 사람들도,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차를 싣고 달리는 배는 도로에 준한다는 의미이다. 즉 뱃길도 도로에 준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물에서 도로가 막히거나 운항이 중단되면 난리가 난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하게 복구를 한다. 모두 국가가 나서서 하는 일이다.

최근 작은 섬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펜션을 짓거나 별장을 지으려는 사람뿐만이 아니다. 전복이나 우럭 양식을 하는 어민들도 작은 섬을 찾고 있다. 큰 섬에서 오랫동안 양식을 한 탓에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면서 대체어장을 찾아 작은 섬마을 어장을 찾고 있다. 작은 섬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물과 가까운 거리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물에서 땅의 가치를 높이려면 도로를 놓는 일부터 시작한다. 섬이라고 다르지 않다. 있는 뱃길을 지키는 일이 섬을 살리는 시작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社說

아시아문화전당 2015년 전면 개관하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단계적 개관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5년 전면 개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초 2010년 개관 예정이던 문화전당이 역대 정부의 무관심으로 수차 연기된 상황에서 2015년 완전 개관마저 미뤄진다는 것은 U대회 개최 등과 맞물려 효과면 반감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지난 1일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에 문화전당 개관 일정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친 단계적 개관 방안을 제시했다. 2013년 예술감독 및 기획자 선임→2014년 문화전당 준공→2015년 프리오픈→2017년 그랜드 오픈 등 일정을 밝힌 것이다. 문화전당 콘텐츠인 축제·전시·교육프로그램 등이 2017년에야 완결된다는 얘기다.

문화전당 건립과 운영을 맡고 있는 문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개발원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정부가 개관을 미루

려는 사전 포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문화전당 개관을 목전에 두고도 문광부가 현재까지 전당 전담인력 300여 명을 뽑지 못하고 있다. 전담인력 선발을 미루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부문 개관을 들고 나왔다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추진단 관계자가 단계적 개관에 대해 ‘개발원의 의견’이라고 일축하면서 콘텐츠 예산 확보가 어렵고, 물리적 시간도 많지 않다고 밝히는 점도 부분 개관 우려를 떨칠 수 없는 대목이다. 광주 시장 등이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더라도 계획대로 2015년 전면 개관 목적지를 높이는 이유다.

문화전당의 2015년 개관은 정부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2015년 광주U대회를 앞두고 세계인들이 문화전당을 찾게 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부는 국제사업인 문화전당 개관에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진정성을 갖고 선도해야 할 것이다.

길 잃은 시민단체 이제 변화 모색할 때다

광주 시민운동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한다. 시민단체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의존하기 어렵고, 중간 활동가들이 공공기관 등지로 줄줄이 이동하면서 ‘돌뿌리’ 시민운동을 이끌 동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때문이다.

현재 시민단체의 회비는 일반회원의 경우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500명 이상의 진성 회원이 유지하는 시민단체는 광주 YMCA, 광주YWCA,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등 5~6곳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단체들은 공공기관이 주는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운동가들이 감시 대상 기관인 재도관에 옮겨가는 것도 문제다. 수년간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다가 공공기관 또는 산하기관, 정치권 등에 입성한 시민운동가는 10여 명에 이른다. 시민단체와 자치단체와의 ‘위험한 동거’는 비판·감시기능을 잃어가는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

다. 이는 시민단체의 자율·독립성은 물론 자체 역량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곧 광주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에게 ‘고행(苦行)’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는 시민들의 외면을 피하기 어렵다. 시민운동이 당면한 우선 과제는 대중의 신뢰 회복이다. 이를 위해선 비판과 감시기능을 더 강화하고, ‘민생운동’으로 시민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젊은 활동가의 양성도 시급하다. 낮은 처우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정과 희망의 활동가들을 발굴해 끌어들이야 한다.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 호응과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활동을 펼쳐야 하고, 시민과 제도권은 이를 뒷받침해주도록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금성산성 보국사 빈터에서...



도 권 백양사 포교국장

며 살고 있는 무승(武僧) 가족이 살고 있다. 금성산성의 안내관을 보니 1894년 동학농민군이 이 산성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최후를 마친곳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고종 당시 전라도 고부군에서는 만석보를 쌓아 농민들의 영농에 도움을 준다고 꼬드겨 저수지를 농민들에게 건립하게 하더니 그해 가을, 엄청난 물세를 거두어 농민의 삶을 힘겹게 했다.

동학의 지도자 전봉준 등은 고부에서 봉기하여 관아를 점령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안핵사 이용태를 보냈으나 오히려 이용태는 농민들을 탄압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동학농민군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 아래 단합하여 관군과의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해 전주성을 점령한다.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직접 개혁을 하기에 이른다. 즉 지배세력

의 타도, 신분제도 타파, 봉건적 폐습철폐, 일본과 내통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고, 토지의 균등분배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조정은 동학농민군과 화해를 모색하여 개혁을 약속한다. 조정의 약속에 따라 동학농민군은 자진해산을 하니 이것이 바로 ‘전주화약’이었다.

그러나 조정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녹두장군 전봉준 등은 1894년 4월25일 전북 고창군 무장읍에서 무장기포 즉 대내외적으로 동학혁명정신을 선포하여 10만의 병력으로 서울로 진격 하나, 5월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에게 패해 장성의 입암산성과 담양의 금성산성에 모여 농성을 하게 된다.

이해 11월 전봉준 장군과 김개남 장군은 측근인 김경천에 의해 밀고,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고 입암·금성산성에 남은 수천의 동학군 대부분은 우수한 화력을 가진 관군과 일본군에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 당시 산성안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물과 군량미는 불태워지게 된다.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개혁과 반외세의 호국정신을 불태웠던 차일함은 터만 남은 담양 금성산성 안 보국사 빈터에 원혼이 되어 울부짖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19년전 개혁과 호국을 노래했던 선열들의 외침은 어디가고 이제는 역사수업시간에 서조차도 국·영·수 시간에 할애하고 있는 출세지향적, 물질추구의 무사안일함에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은 빛을 감하고 있음을 탄식한다.

정당한 그 담당자가 바뀌고 또 민주국가에서는 투표를 통해 유기적으로 바뀌어야만 되지만 국가와 민족의 담당자를 국가와 민족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을, 구한말 상황과 같은 이 시대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고

농산물 직거래로 농촌 일자리 창출



한 의 승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 대표

마을회관에 모여 화투놀이나 TV를 보면서 소일한다. 10여 가지의 약봉지를 달고 사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에게도 일자리가 필요하다. 일을 하면서 노후를 즐겨야 건강도 유지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다. 노인들이 건강해야 국가의 의료비 부담과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 즉 일자리 창출이 바로 가장효과적인 복이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도 일자리가 없어서 야단인데 무슨 생똥맛은 소리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고령자는 평생 농업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벼운 일은 할 수 있다.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래서 고령노인들이 안전하게 소규모로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농산물직매장을 산지와 가까운 지역별로 만들어야한다.

직매장의 운영은 농협이나 지방행정기관 혹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운영해도 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직매장을 설치하면 도시노인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출하된 농산물은 생산이력을 확

인할 수도 있고 유기재배되거나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안전농산물이라고 한다.

물론 당일 수확한 농산물을 당일 출하하고 당일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오후 6시가 되어도 팔리지 않는 농산물은 폐기 처분하던가 복지시설에 기증한다. 가격은 일반 슈퍼마켓 가격의 70~80%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면 된다. 그래도 포장비 시장수수료 등이 들지 않게고 시장에 출하하지 못하는 소규모농산물이고 규격이 통일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는 농산물이므로 농민에게는 득이다.

이들 직매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도시 지역 행정의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공공음식나 공원 등에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직매장 설치를 허용해야한다. 도시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도시농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도시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도시농업의 존재는 식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고령자 부부 한 가정이 160평방m(약 50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류를 재배한다 면 도시가정 30가구에 1년간 상당하고 안전한 채소를 공급할 수 있다. 이들 생산농가와 도시소비자 가구가 모여서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결성하면 아름다운 생활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다.

일본은 1만6000개의 직매장이 운영된다. 이들 직매장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고 일부는 대도시에도 개점하고 있다.

출하하는 농산물은 우선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도시의 슈퍼마켓보다는 오히려 농촌지역에 있는 직매장을 더 선호한다. 가격 면에서도 슈퍼마켓보다는 저렴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에 종사하는 고령자들의 건강수명이 연장되었다는 점이다. 농산물직매장이 활성화된 지역은 고령자들의 건강이 향상되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는 발표도 있다. 단종일을 판매하여 연간 40억 원을 판매하는 일본의 어떤 지자체장은 농가소득의 향상도 있지만 관내에 체재 결린 노인이 한 분 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자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단종일 판매사업으로 40명의 노인 일자리를 얻은 셈이다.

농산물 직매장을 활성화시켜 한국농업과 농촌도 활성화시키고 농촌고령노인들의 일자리도 마련됨과 동시에 의료비 절감으로 국가재정이 건전화된다면 이야말로 일석삼조(一石三鳥)가 아닌가?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사는 걸로 속아 온 것이다.

알고 보면 판매자들도 억울한 부분이 적잖다고 한다.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 측에서 돈을 내는 대로 최상의 코너에 올려주니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를 살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어쨌거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속임수에 당하고 사는 게 억울할 뿐이다. 우리 사회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전사회로 가는 길, 이리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유병희·광주시 북구 신용동

인터넷 오픈마켓 인기상품 ‘광고비 장사’ 분통

가정에서 살피하면서 시간까지 다니는 주부들은 쇼핑 자체가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자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 쇼핑몰의 주부들을 노리는 악덕 상술에 화가 날 때가 있다.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인기 상품이나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에 눈이 가게 마련인데, 실제 인기와는 상관없이 그저

돈으로 사는 광고가 적잖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제품 다 주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는 꼴이므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그 속성상 아무래도 베스트 상품이나 인기 상품이 손길에 자주 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상단에 있는 상품들을 많이 보는데, 그것은 소비자수가 많이 왔고 인기 상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된 것이라는 생각과 인기가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입맛에 잘 맞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심리적 믿을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인터넷 오픈마켓들이 광고비 수준으로 순위를 정했기 때문이다. 더 많은 돈을 내는 상품을 베스트 항목에 올리고, 실제로 일종의 광고인 부가서비스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문구를 붙여줬다고 한다.

그야말로 제품 만든 업체가 돈만 있다면 자사 제품을 얼마든지 우수제품, 베스트제품, 인기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이니

無 等 鼓

가수 아이유와 2AM이 부른 ‘잔소리’는 예인의 투쟁어린 잔소리를 담담하게 해석한 노래다.

여자친구가 “늦게 다니지 좀 마/술은 멀리 좀 해/열살짜리 애처럼 맘을 안 들고/내 말 듣지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라며 다그치는데도 남자친구는 “그만하자 그만하자/너의 잔소리마저 난 달콤한데”라며 즐겁게 받아들인다.

잔소리하면 보통 짜증스럽게 생각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때는 반응이 달라진다.

“공부해라” “장가가라”는 잔소리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술·담배 좀 줄여” “몸 좀 챙겨” 같은 잔소리는 싫지만 몸을 움직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뉴질랜드 린컨대학팀의 연구 결과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 배우자나 아이들의 잔소리를 곱하게 여기는 것보다 마른뿔과 동시에 의료비 절감으로 국가재정이 건전화된다면 이야말로 일석삼조(一石三鳥)가 아닌가?

라는 잔소리가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며칠전 내놓은 자료를 보면 호남지역 사람들이 술·담배를 가장 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험 음주율(1주일에 두차례 이상 한잔에 서 7잔 넘게 마시는 것)은 전년이 13.5%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북(13.7%)과 광주(14.1%)가 그 다음으로 낮았다. 흡연율도 전북(44.4%), 광주(45.1%), 전남(45.4%)이 각각 2, 5, 6위로 낮은 편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느 지역이나 아내가 남편의 음주와 흡연에 잔소리를 하지만 호남지역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석해 흥미를 끌었다. 지역별 음주·흡연을 차이를 연구(女權)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가정분야 성평등지수(2011년 기준)를 보면 전남이 가장 높았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일까. 몸 챙기는 아내의 잔소리가 오히려 달콤하게 들린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잔소리와 건강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서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지털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서울지사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